

보건

영유아모 피임실천율 81%

피임실천 적극 권유 인구억제에 큰 성과 거둔듯

인제대 연구진 1백52명대상 조사

출산후 18개월미만 영유아모의 피임실천율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 보건대학원과 예방의학교실이 영유아모 1백52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부산시 18개월미만 영유아모의 피임실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유아모의 81%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유아모의 피임실천율은 우리나라 부인들의 전체 피임률 77%보다 높은 것이며 이들 영유아모가 실질적인 가임여성인데다 출산육구를 많이 갖고 있는 층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후 여성의 신체가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의학정보를 감안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한지 얼마 안된 모성의 피임실천율을 한층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 여성은 영아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일이 많고 아직 산통을 잊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피임실천을 권유하면 인구억제등 가족계획사업 차원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피임을 않는 이유는 △자녀를 더 원하는 경우 38%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3%등으로 나타났으나 19%는 피임지식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가족계획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모의 피임지식 습득원은 △가족계획요원 44% △남편 17% △대중매체 14% △형

제·친척 9%로 남편의 비중이 의외로 컸으며 올바른 피임실천을 위해 부부동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피임방법은 콘돔과 월경주기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영구피임인 난관시술과 정관수술도 32%를 차지했다.

신해림교수(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조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좀더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출산후 산모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바로 임신을 하게되면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이롭지 않으므로 적절한 터울을 갖고 재임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범세계적 산아제한계획 제안

1991년 12월 21일
에서의 인구증가분이라고.

【유엔본부 AP=연합】로버트 맥나마라 전세계은행 총재는 10일 앞으로 1백년내 세계인구가 3배로 증가해 20세기에 이룩된 모든 진보를 일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연간 80억달러 규모의 전세계적 산아제한계획을 실시할 것을 제안.

맥나마라 전총재는 유엔인구기금주최의 한 인구문제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선진국과 제3세계국가들이 90년대에 인구성장률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계획의 실시를 위해 20세기말까지 연간 8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주요 선진국들이 35억달러, 개발도상국들이 45억달러를 각각 각출해야 한다고 강조.

유엔은 산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54억의 인구가 향후 1백년내 1백4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세계인구는 한해평균 1억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

생명

생산